

## 스타일에 관한 연구 - FORM 生 FORM 死<sup>1</sup>

똑똑. 인기척이 없었다. 다시 똑똑. 시계를 보니 오후 두 시 일분이 지나고 있었다. '설마 일본 늦은 걸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작가들은 저마다의 철칙을 가지고 있었다.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 꼽자면 그들은 일종의 명민함과 예민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소설가 김영하도 예외는 아니지 싶었다. 두 번의 노크 끝에 방 문 고리를 한 번 돌려봄직도 한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러다 속에서 사람이 나오면 쌍방이 다 당황스러울 것 같아 그만 두었다. 그의 학교 사무실 앞에 난간에 걸 터 앉으려는 순간, 코너를 돌며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가 보였다.

"어, 미안해요. 내가 잠깐 해결할 일이 있었어요."하며 그는 방 문을 열었다. 언뜻 보아도 세련된 방 안을 들어서려니 문 밖에 가지런히 놓인 국밥 한 그릇이 눈에 띄었다. 별로 입에 맞지 않았는지 국밥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었다.

방금 부산에 다녀오는 길이라는 그는 조금 루즈한 느낌의 블랙 라운드 티를 입고 있었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검은 뿔 테는 나름의 광채를 뽐어내는 듯 했다. "부산 영화제에 다녀왔어요. 지난 금요일에 내려가서 한 옛새 정도 머물렀나?" 지난 대중상 영화제에서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각색상을 받던 그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난 원래 음악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미술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일종의 매체로서. 그 중의 영화는 하나죠. 다만 영화에 돈이 많이 몰려있으니 그 쪽에서 오는 영화평이나 각색 청탁이 많은 거 아닐까요?" 혹시 시인 출신의 유하 감독을 같은 작가의 입장에서 동경하고 있지는 않은 지 궁금했다. 더욱이 자신의 단편과 장편이 영화화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요즘이니. "제가 유하 형을요? 유하 형이 저를 동경하죠. 하하. 영화는 힘들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뭐, 나중에 정 시간이 남고 누가 꼭 찍으라고 하면...쓰읍. 그것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하긴 다다이즘 선언문의 일부였던가. '그림으로 그릴 것을 굳이 음악으로 표현하지 말고, 글로 써도 될 것을 굳이 영화로 찍지 말자'고. "그래도 사진 찍는 건 좋아해요. 내게 있어선 소설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 영감을 받는 분야는 다양해요." 아니나 다를까. 부산 영화제의 정경만큼이나 부산한 기운을 띠고 있었던 그의 방 안 테이블 위에는 짙은 카키색 카메라 가방이 놓여있었다.

"보그 사진들도 눈 여겨 보죠. 여신을 연상케 하는 모델들과 그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포토그래퍼들과의 협력이 이렇게 잘 이뤄지기도 쉽지 않죠. 늘 과감한 컨셉을 시도하는 것도 높이 사구요." 안 그래도 그는 자신의 신간 「랄랄라 하우스」에서 헬무트 뉴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튼의 자서전 안 읽어봤어요? 그거 정말 재밌는데...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책 읽었냐고 물어보면 다들 두 번 놀라요. 일단 내가 보그의 포토그래퍼를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자서전까지 읽었다고 하니.."

---

<sup>1</sup> 2005년 10월 <보그 코리아> 주최 '1st Talent Contest'에 당선된 글로써, 소설가 김영하씨와의 실제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방은 일반 대학 교수 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냉면 집 조명'을 싫어한다는 그는 금색의 할로겐 등을 몇 군데 설치해 두고 있었다. "어휴, 난 쇼핑 광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고가구도 e-bay로 산 거예요. 가구는 WTO에 가입된 거라 관세도 안 붙어요. 이젠 중국에서 왔는데 운송비도 십만원 정도 밖에 안하고...그냥 재미있잖아요." 깔끔한 외모에 도시형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만 같았던 그였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다. "난 남이 쓰던 물건들 좋아해요. 집에도 중고품이 즐비하죠. 물론 쓸모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구요. 중고라고 해서 안 나오는 스피커를 집에 가지고 있겠어요?" 시간이 날 때면 신촌과 홍대 앞을 연신 돌아다니는 그는. "사물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걸 사보아야 해요. 그냥 보기만 해서는 모르죠. 만약 '디카 연구학회' 같은 데서 어느 상품이 제일 좋은지 알아보라고 하면 열심히 알아보겠어요? 자기 물건을 사는 거니까, 자기 돈이 나가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알아보는 거죠."

평단에서 소설가 김영하를 두고 '신세대적 감성'이다 '파격적이다'하는 것들도 그의 의생활과는 무관하지 않은 듯 보였다. 화려한 아웃핏(out fit)은 아니었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었다.

"일제 시대의 작가들 중에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멋쟁이'가 많았어요. 미국의 작가들만 봐도 그래요. 언뜻 보면 패션에 무관심한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타이틀 안 매잖아요. 뭐 간단한 가디건을 골라도 꼭 작가다운 무언가를 고르다니깐요. 패션은 그 사람의 언어예요. 눈빛도 언어이듯. 난 글을 언어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패션 또한 오래된 인류의 메타포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최대한 존중하는 편이죠."

브라보. 한국 문단의 패셔너블한 면모라니. 예상치 못한 호재였다. 이제껏 작가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를 곡해하고 있었다고 여겼는데, 김영하는 그러한 악성 루머를 단방에 격파시켰다. 과연 그의 유연성은 어디까지일까. "문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봐도 그렇잖아요? 학도 있지만 문도 있는 거라구요. 난 소설가로서 연구자 혹은 학자로서의 자세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대중에게 재밌는 소재를 안겨줘야 할 탄दार로서의 기질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 혼자만 즐거운 거, 그걸로는 부족하죠. 남도 즐겁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김영하의 신간 「랄랄라 하우스」는 이미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합류해있을 정도로 '모두의 즐거움'에 부합하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말 그대로 '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혹은 친구 집에서 뒹굴 거리면서 봐도 무방한, 정말 무방한 책이죠. 싸이월드 편집상의 원형만 따온 거예요. 이제껏 한국일보에 연재해오던 것을 책으로 묶자는 이야기는 실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에 딱 맞는 디자인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었죠. 싸이월드. 이것도 한 시대의 유물이잖아요. 영원할 수는 없지만, 한 세대를 대표하고 공유했던 무언가. 십년 후에 이 책을 보면, '아, 그래. 예전엔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킁킁할 수 있는 걸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그가 모두에게 자유분방하게 만든 보이지 않았나 보다. 한 평론가는 김영하를 두고 '특유의 경제적이며 견고한 형식으로 한국 문학의 보수주의를 계승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작 나 자신은 늘 변화를 원해요. 남들이 안 한 걸 시도하는 그 자체. 매우 좋아하고. 근데 동시에 파격적인 것 만큼이나 고전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상충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 그래야 흥미가 생기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알밋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정통적인 것과 파격적인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 감각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글썬, 내가 보수적인 거는...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농민 운동가는 농민 운동가답게 그리고 모델은 모델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입는 게 좋죠. 그런 게 보수적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에게 어떤 무국적 성을 읽어내야 하는 걸까. 그 어느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김영하'라는 단독 영역을? 그는 누구를 닮아 여기까지 왔을까? "뭐 사람들 중에는 내 글이 하루키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쿤데라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는 작가가 하루키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독자들은 내가 하루키와 비슷하지 않나 여기기 쉽겠죠."

이러한 김영하 특유의 자신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일까. 그는 얼마 전 미국 10대 출판사 중 하나인 하코트 출판사와 아주 파격적인 조건의 판권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어유. 대단했죠. 올해 초에 이태리의 출판사에 「아랑은 왜」와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일본 슈이이샤에 「검은 꽃」이 팔렸어요. 그것도 매우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뉴욕에 바바라 지터스라는 열정적인 에이전트를 하나 두었는데, 이번 하코트는 그 에이전트 공이 크죠."

언제부터 한국 문학계에도 한류 열풍이 분 것일까. 5개 국어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한국 소설, '만세 삼창'을 불러야 할 상황인데 웬지 모르게 더 움츠러졌다. "난 원래부터, 그러니까 등단할 때부터 목표가 이거였어요.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거. 아마 우리 세대에선 이렇게 해외로 책이 팔려나가는 게 내가 처음 일걸요? 이때까지는 번역 문제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꾸 뺏어 나가야 해요. 노벨 상, 뭐 그런 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저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곳 서점에서 내 책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진행된 게 사실이지만요."

갑자기 빛 바랜 최민식의 연기가 떠올랐다. 「야망의 세월」. 김영하의 말들 속 깊이 베여있는 흔적의 근원을 '야망'이라 칭한다면 너무 천박한 것일까.

"보그나 다른 패션 잡지들. 다 좋은 데 좀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광고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주문인 거는 알고 있지만...거의 둔기(鈍器)수준이지 않아요? 뒤에서 내리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하. 좀 심한 농담이었지만...아무튼 어디 이동할 때나 평소에도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광고를 줄이더라도 얇아졌음 해요. 아무래도 힘들겠죠?"